

인구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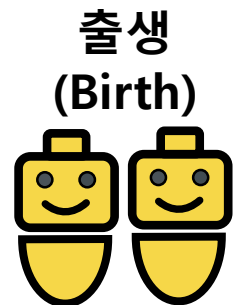
Population
Future
Coexistence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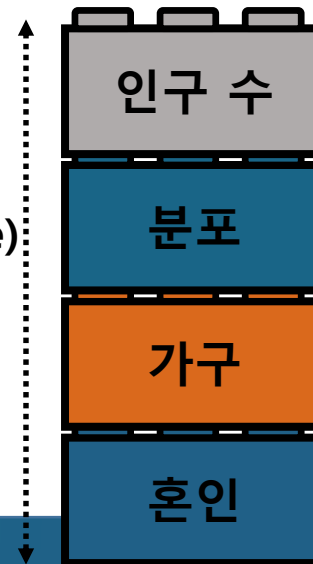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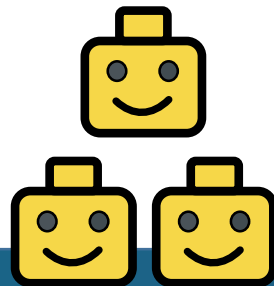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인구학

우선 인구학,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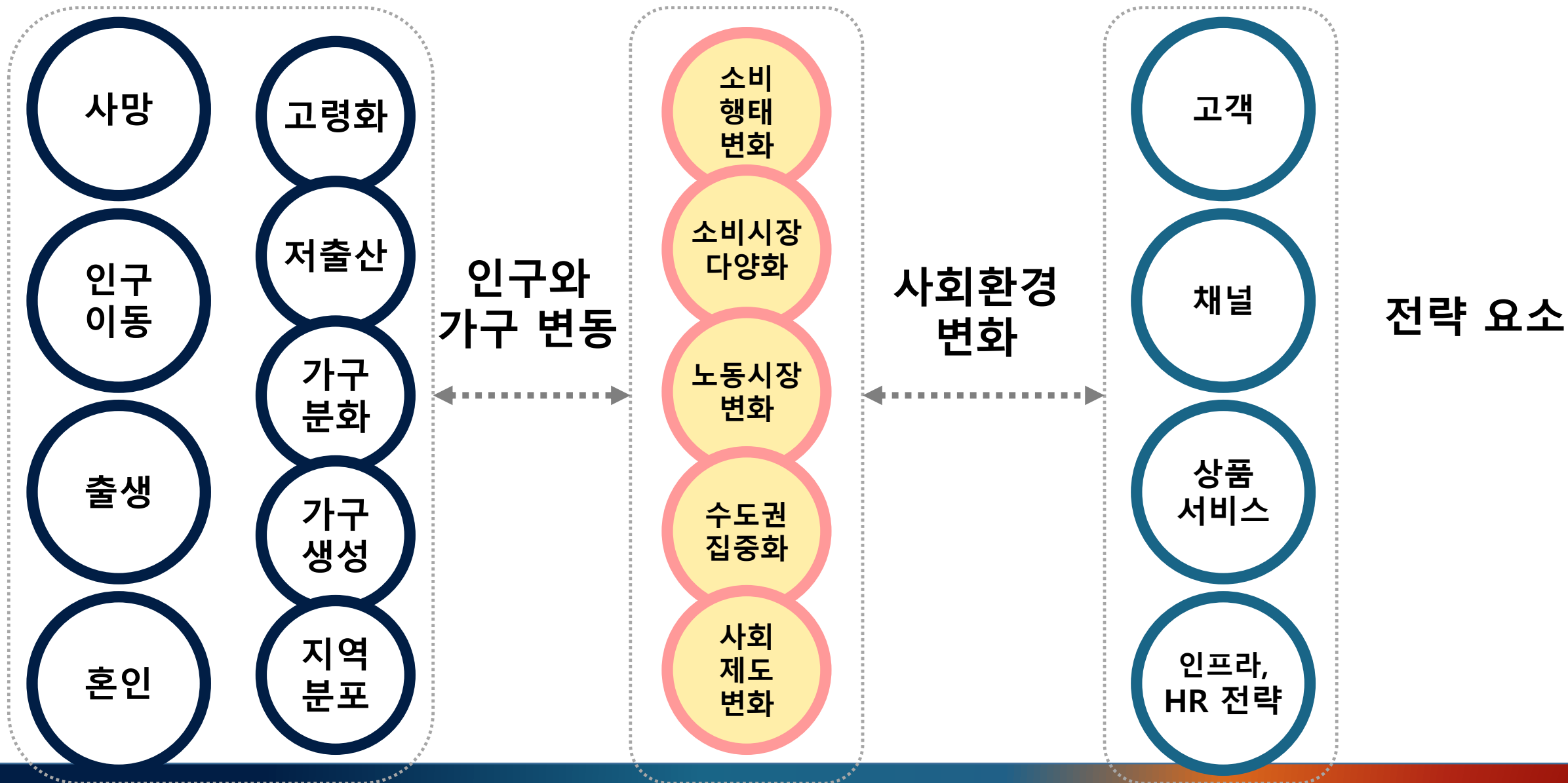
인구와 자원 간의 균형



인구 밀도
(Density)
연령 구조
(Age Structure)



주로 무엇을 연구하는가?



인구와 가구 변화는
사회와 시장을 언제, 어떻게 바꿀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인구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질문들

- › 퇴직(은퇴) 인구가 급증하면 2030년 금융 환경, 어떻게 변할까?
- ›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 했는데, 어떤 소비자 집단부터 'Target'을 해야할까?
- › 우리 제품의 큰 손, 영원 할까? 새로운 대장주는 누가 될까?
- › 현재의 임직원 충원 계획이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 › 베트남 인구 변동을 고려하면, 병원식 시장 전망은 어떨까?

인구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질문들

공공에선 없나요? - 관악문화재단(feat. 젊은 담당자의 질문)

“ 저희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청년들이 와서 살기에 매우 용이한 곳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본래 서울에서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 생활을 누리려고 이곳을 찾는다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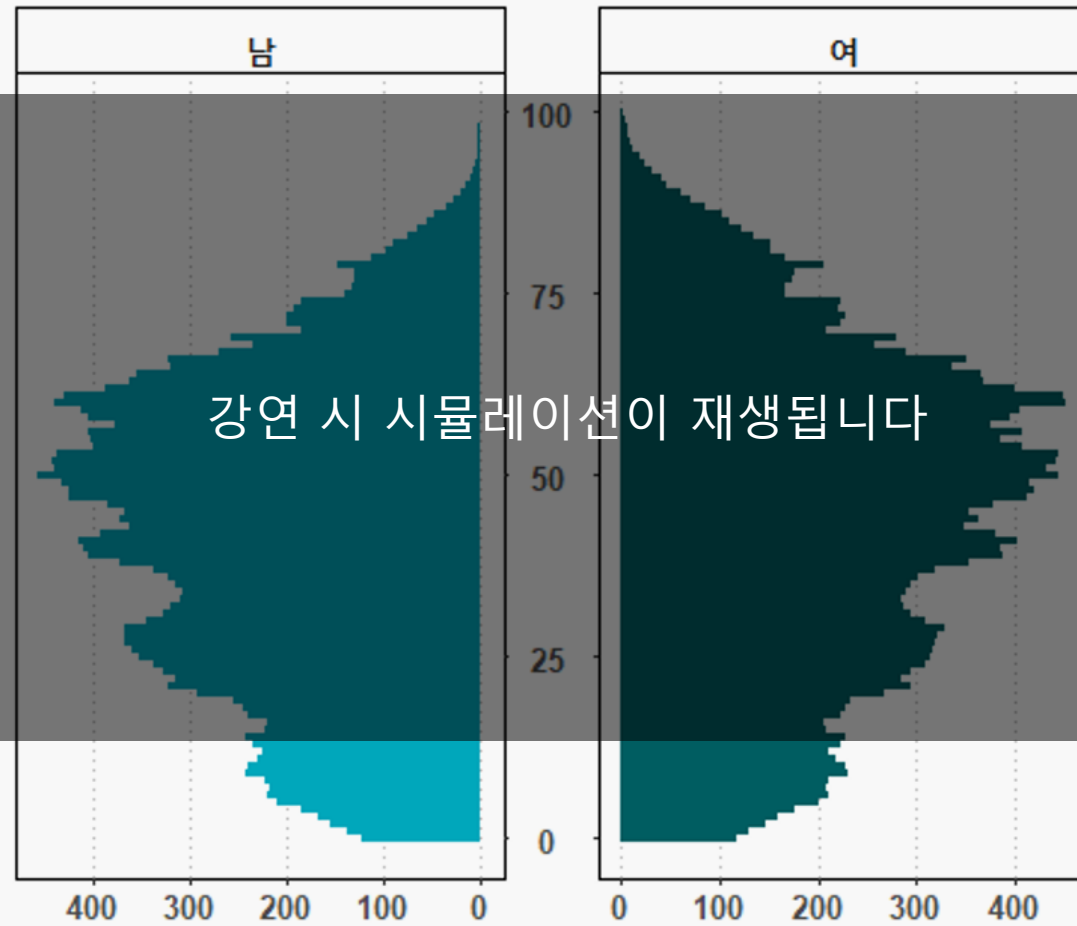
저희의 가설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생활문화/Life-Style이 서로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적절한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대한민국 어떻게 변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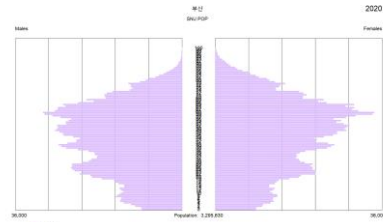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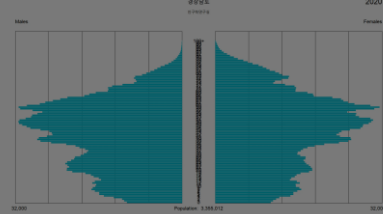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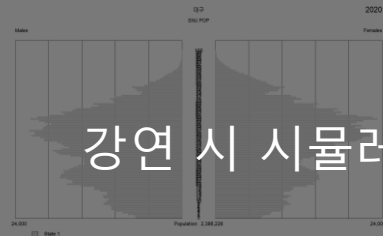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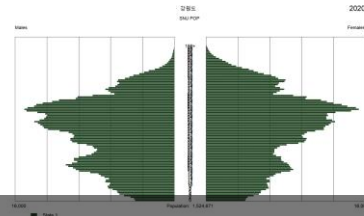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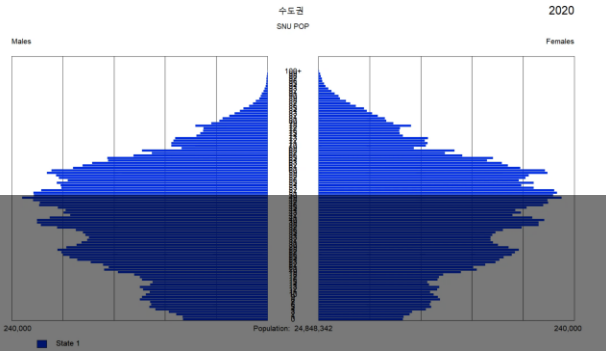
대한민국 인구추계
2021년 : 499791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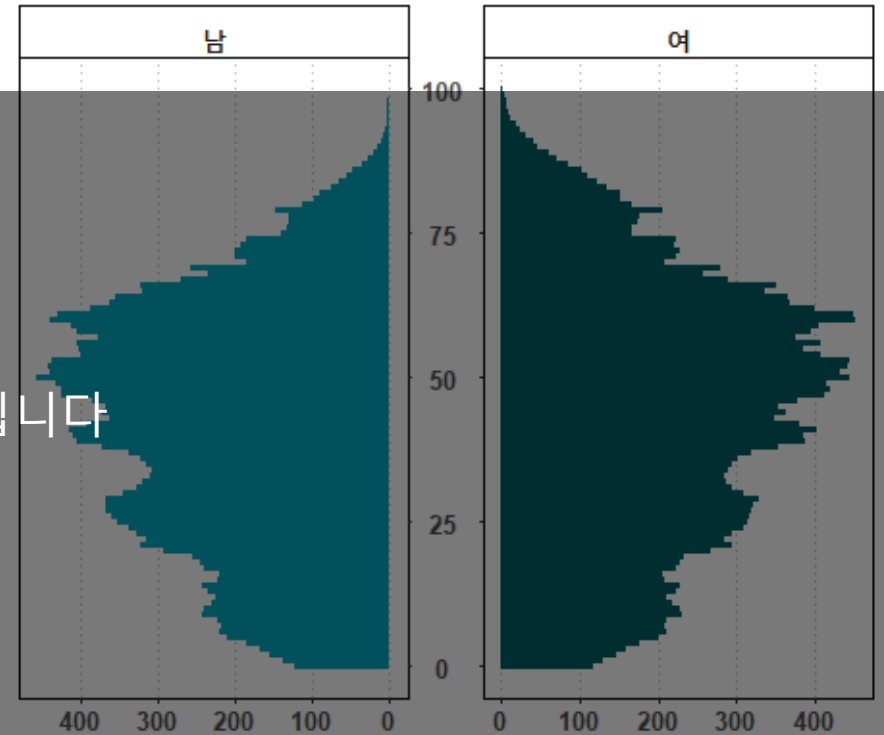
인구수(천명)

* 본 추계는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추계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과연 지역의 미래는?



대한민국 인구추계
2021년 : 49,979,160명



인구수(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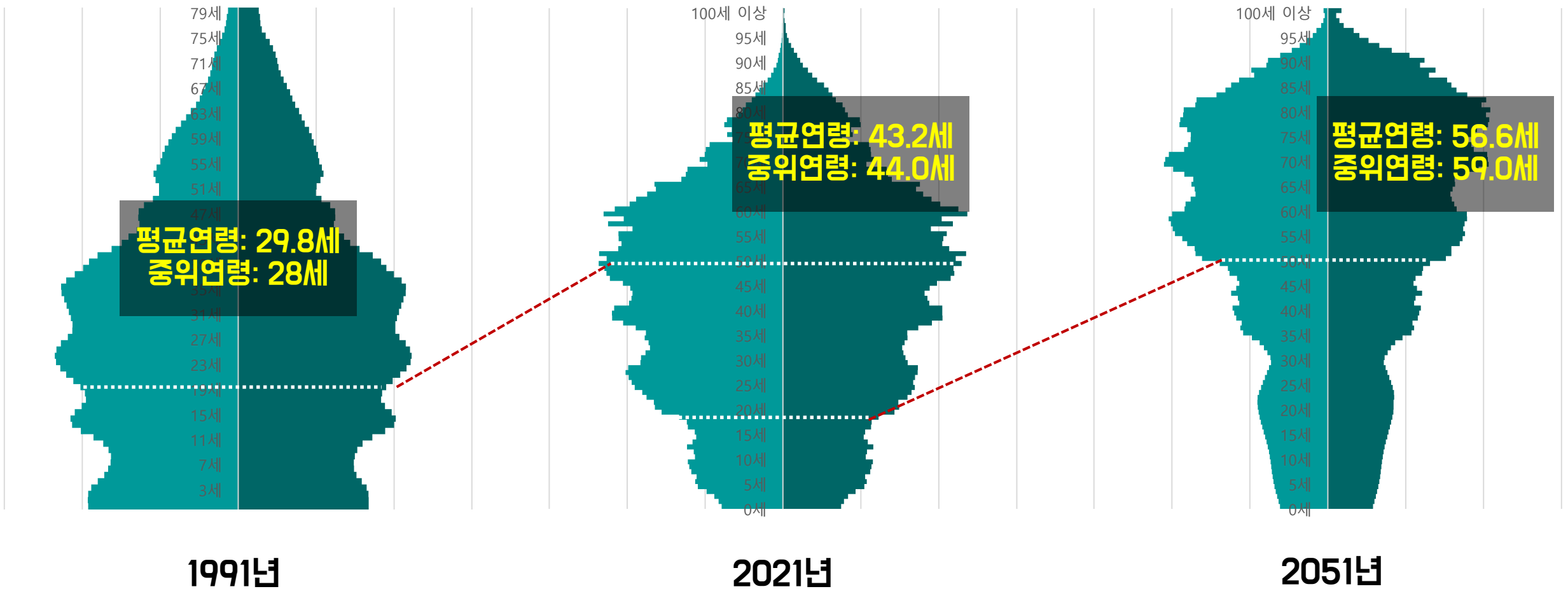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강연 시 시뮬레이션이 재생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회가 온다



이러한 미래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후속 세대와 우리기업에

어떤 나침반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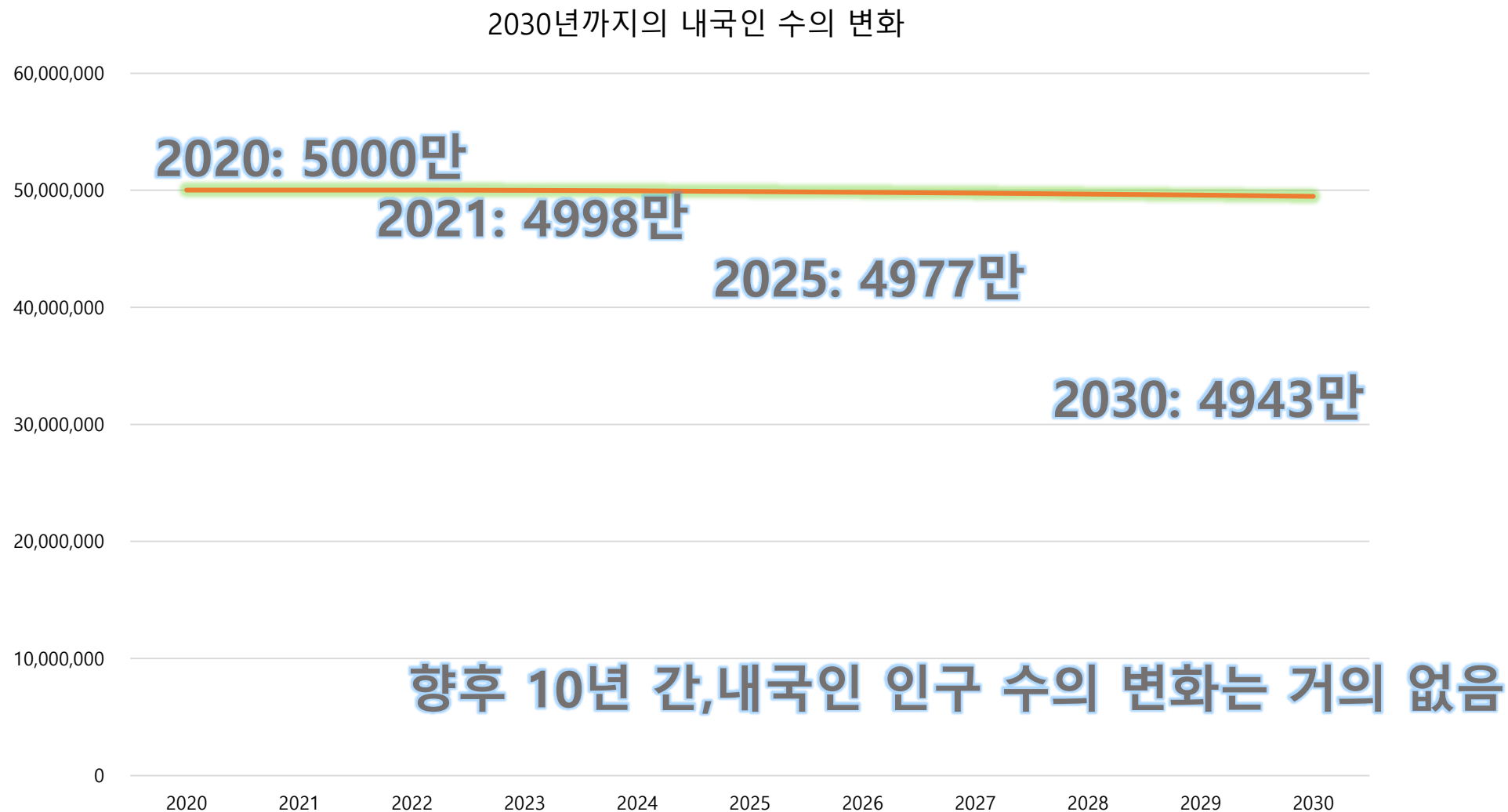
판단의 기준은 누구의 눈에 맞추어야 할까요?

그런데...

2100년, 2050년..

음 너무나 먼 미래 같은데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아닐까?



그럼 앞으로 10년 간 뚜렷한 인구 절벽이 없으니,

인구 효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시장이 규모의 경제에서 다양성의 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인구절벽을 실감할 시간은 다가온다

2021. 1.4

중앙일보

'인구 데드크로스' 사상 첫 현실됐다...출생 27만<사망 30만명

[중앙일보] 입력 2021.01.03 15:15 수정 2021.01.03 18:43

허정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1인 가구' 증가로 세대 수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난해보다 심해졌다.

2만838명 감소...출생아 20만명대 추락



세계일보

출생자 매년 3만명씩 급감...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

입력 2021-01-04 06:00:00 수정 2021-01-04 08:45:39

- 인구 감소 '브레이크' 풀린 한국
- 17개 시도 중 12곳 인구 감소
- 인구 50.2% 서울·경기도 거주
- 24%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속
- 전체 세대 40%가 '나홀로 가구'



'0.84명' 출산율 세계최저 한국, 또 역대최저

출처: 2021-01-04 11:59 수정: 2021-01-04 15:02:30

한겨레

hani.co.kr

지난해 출생아 30만명대도 깨져
인구 자연감소도 처음으로 시작
코로나로 결혼 줄어 더 내려갈듯



서울의 한 산모실이 인공어울 (한겨레)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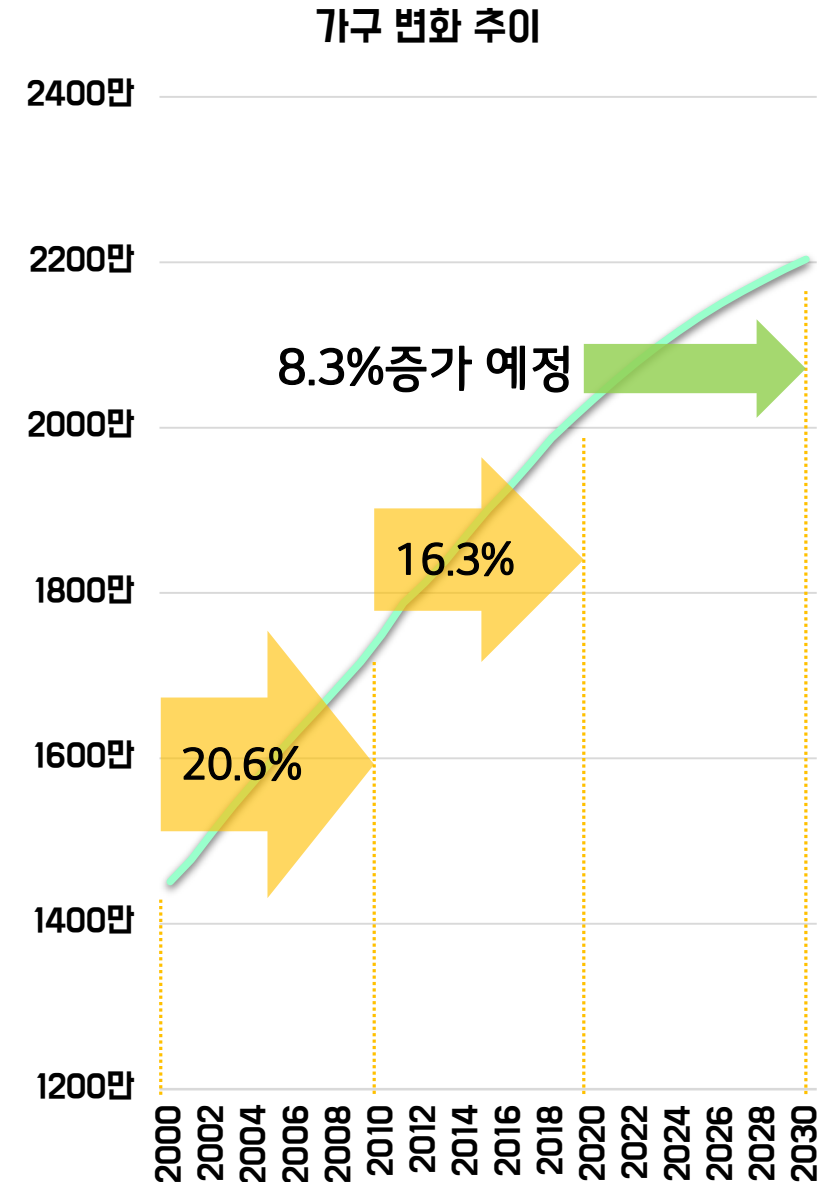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처음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사태 영향으로 결혼이 크게 줄어, 향후 출생이 감소 추세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구의 증가세가 둔화된다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구의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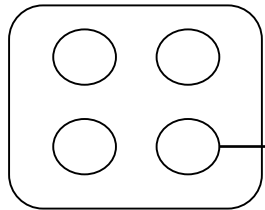
- √ 가구 총수는 여전히 증가 예정
- √ 그러나 과거 10년에 비해 '더디게' 증가할 것임.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국내 시장에서,
매우 '필사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



가구 segment가 바뀐다

가구 segment가 바뀐다



→ **개인 Persona**

이런 가구에서 사는 개인이 몇 명인지

가구 Seg

이런 조합으로 사는 가구가 어느 지역에 몇 가구인지

아이가 독립한 가구?
원래부터 없는 가구?

아이연령이 같다면?
삶의 궤적이 비슷?

| 세대 | 가구원 수 | 가구 구성 | 번호 |
|-------------|-------|-----------------------|--------|
| 베이비붐 1세대 | 1인 | 1인 | Seg 1 |
| | 2인 | 부-부 | Seg 2 |
| | 3인 이상 | 부모(부 or 모)+자녀(M세대) | Seg 3 |
| 베이비붐 2세대 | 1인 | 1인 | Seg 4 |
| | 2인 | 부-부 | Seg 5 |
| | 3인 이상 | 부모(부 or 모)+자녀(M세대 첫째) | Seg 6 |
| X세대 | 1인 | 1인 | Seg 8 |
| | 2인 | 부-부 | Seg 9 |
| | 3인 이상 | 부모(부 or 모)+자녀(Z세대 첫째) | Seg 10 |
| 밀레니얼 세대 | 1인 | 1인 | Seg 12 |
| | 2인 | 부-부 | Seg 13 |
| | 3인 이상 | 부모(부 or 모)+자녀(α세대 첫째) | Seg 14 |
| Z세대 | 1인 | 1인 | Seg 15 |

2030년까지 가구의 70% 이상 포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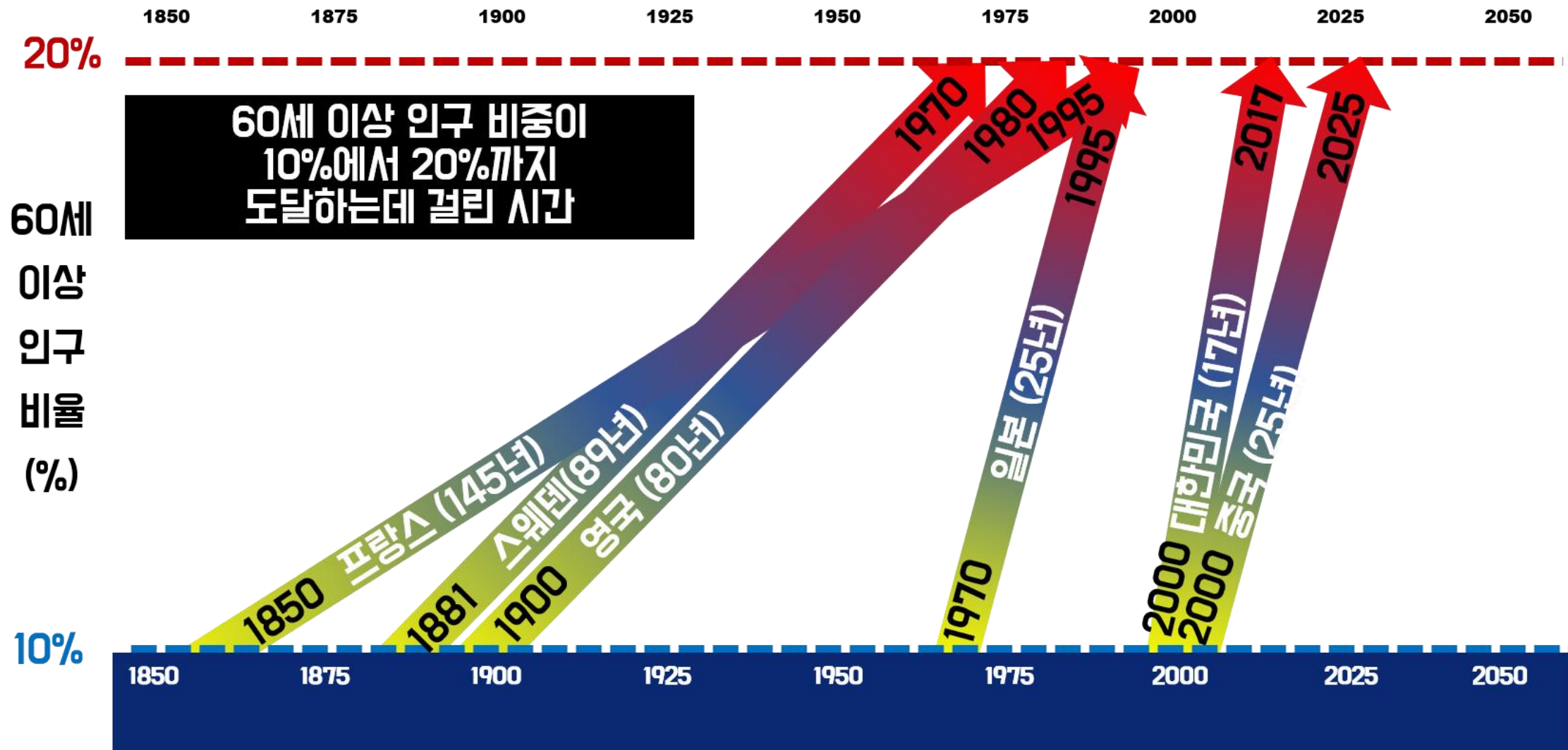
그런데 인구 절벽이 정말 문제일까?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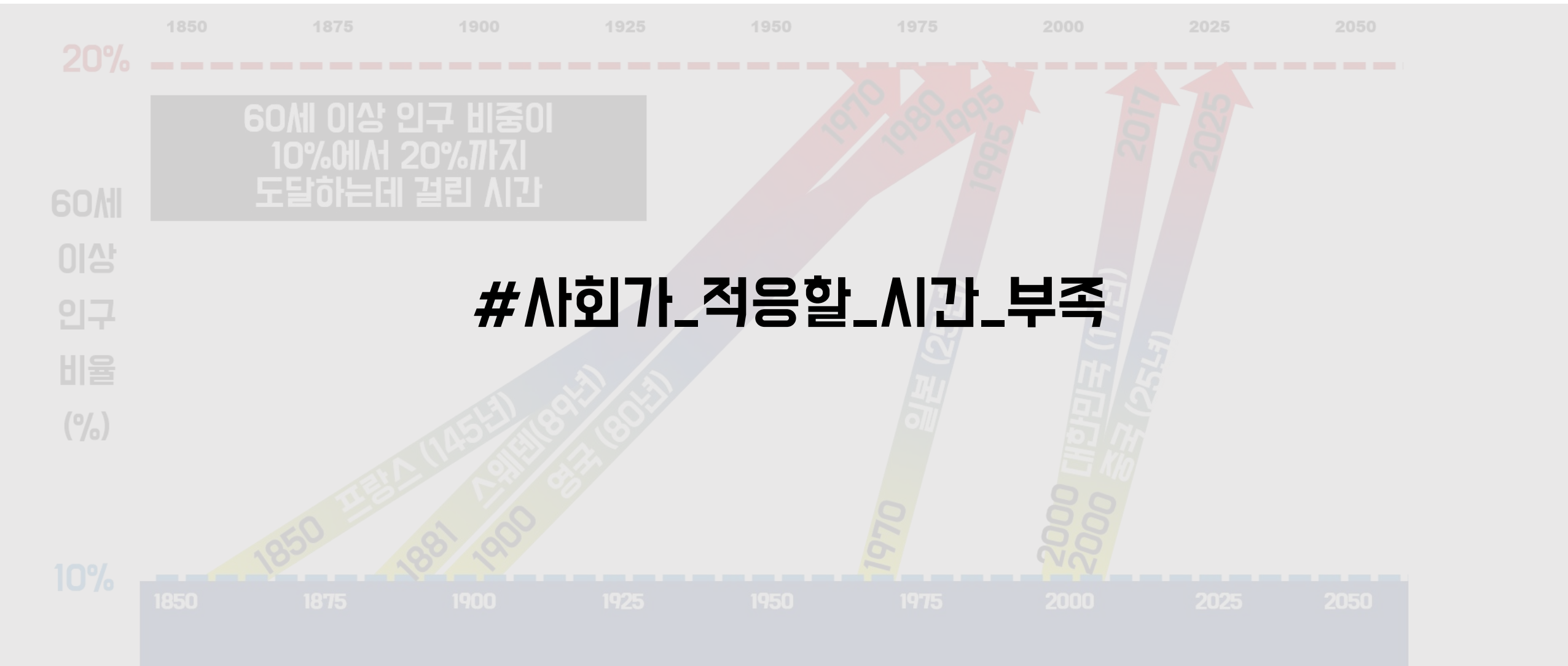
 아니죠, 소비와 생산의 단위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좋아지나요?
당장 큰일이 날 것 입니다.

어느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그 속도가 '빨라서' 문제다



우리는 그 속도가 '빨라서' 문제다



게다가 차별적이라서 더 문제다

**연합뉴스**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뉴스룸 | 최신기사

교복업체 맞나?...야구복·문구용품도 만든다

송고시간 | 2020-10-30 07:00

권혜진 기자
기자페이지

학령인구 감소로 교복시장 위축...사업 다각화·중국 진출
형지엘리트, 스포츠 '굿즈' 제작...스쿨룩스, 캐주얼 의류 출시 예정



이데일리 2021년 01월 12일 화요일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 Q 사회 복지·노동·환경 **교육** 지자체 법조·경찰 의료·건강 사회공헌 사회일반

[단독]전국대학 정시경쟁률 3.6대1 '사상최저'

지방대는 빈사상태

지방대 경쟁률 2.7대1...'사실상 미달' 가능성 83개교
"3대 1 미만 사실상 미달 대학"...지방은 57%가 미달
전국 209개 대학 경쟁률도 3.6대1로 '사상 최저' 기록
올해 대학 미충원 7.6만명...2024학년도 12.3만 정점

등록
수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 3.6대1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기에 복수원을 감안하면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분류된다. 전국 미만은 40%에 달하는 83개교다.

| 구분 | 2017 학년도 | 2018 학년도 | 2019 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
| 경쟁률 | 5.0 | 4.4 | 4.4 | 4.4 | 3.6 |
| 모집인원 | 27,277 | 138,510 | 138,510 | 138,510 | 138,510 |
| 지원인원 | 108,378 | 88,297 | 88,297 | 88,297 | 88,297 |
| 경쟁률 | 4.3 | 4.2 | 4.5 | 4.3 | 2.7 |
| 합계 | 5.1 | 5.1 | 5.2 | 105,734 | 483,991 |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지방 소재 대학별 정시 경쟁률(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서울권 5.1 : 1
수도권 4.8 : 1
부산권 2.4 : 1
광주권 1.9 : 1
전남권 1.7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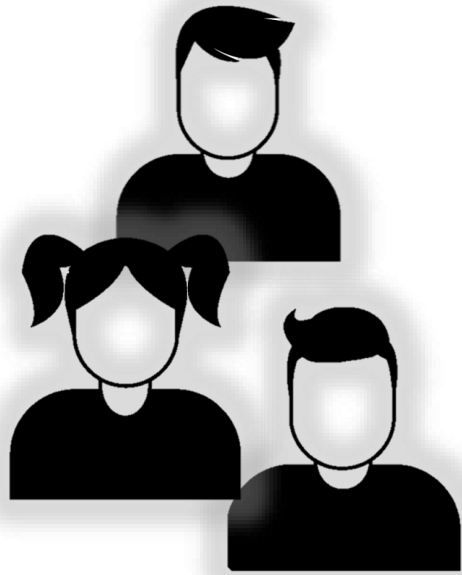
영유아 학령 인구 감소

- 1) 영유아, 학령 인구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지나친 프리미엄화 (한국소비자원 보고서)**
- 2) **지역별로 매우 다른 인구 감소의 damage 정도**

게다가 차별적이어서 더 문제다

만인은 평등하나,
인구 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게다가 차별적이라서 더 문제다



나는 인구와 관계가 없어.
우리나라 인구가 경제를 어렵게 해?
난 해외로 가면 되지!
서울은 항상 인구가 많고 !!

인구 절벽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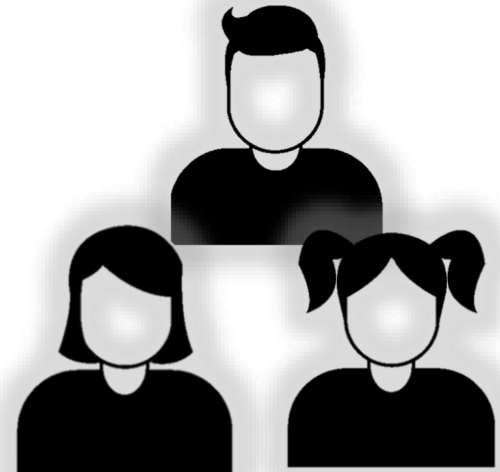


Consensus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경제적 격차를 '심화' 시킬 것

코로나19 벗어나도
인구 감소가 기다린다고?
내게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 전부인데?



그럼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까?

총 인구수로 버티는 10년

+

인구절벽 본격화까지의 10년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기간"

#대비를_하면_더_큰_기회가

#10년_길다_하고_지나가면

미래를 예측할 때 인구학의 강점

- › 시장의 양적인 변화, 질적인 특성 변동을 모두 고려
- ›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 분석도 가능
(인구 Data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얼마만큼의 변화가 올지 예측이 가능
적응과 기획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

10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

1. 완화 (Mitigation)

‘What should be the goal of population policies?’

2. 적응 (Adaptation)

- Lutz (2008)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3. 기획 (Planning)

“지방인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김하나, 고우림, 임예진, 정명구, 조영태 (2020) 한국인구학회지-

지역에서 10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

- 1. 완화 (Mitigation)** : 출산율 제고, 이주민 정책 등으로, 빠른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
- 2. 적응 (Adaptation)** : 작아지는 수에 대한 적응
- 3. 기획 (Planning)** : 미래를 보며, 기획하여 반전의 기회를

어떤 것이 더 '선호'된다고 판단할 수 없음.

필요에 따라 혹은 시점에 따라 어떠한 것이든,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음.

지역에서 10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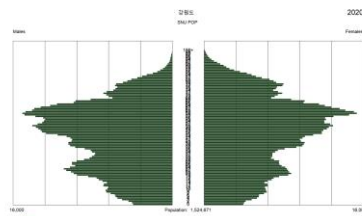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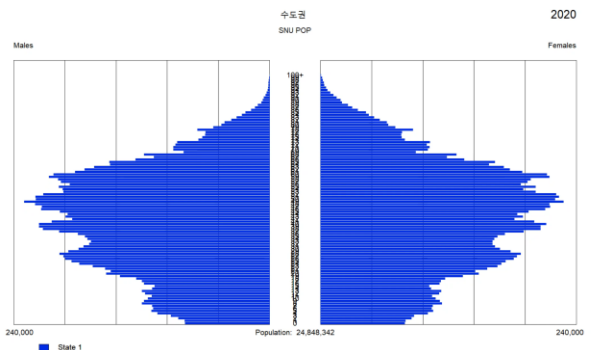
1. 완화 (Mitigation)

2. 적응 (Adaptation)

3. 기획 (Planning)

우리 지역엔 어떻게 적용 해야할까?

지역 사례는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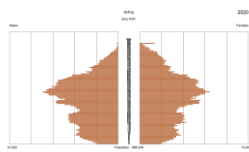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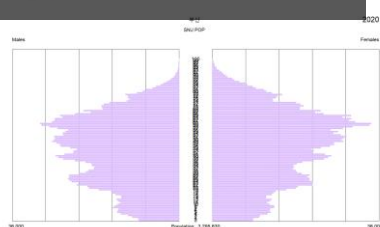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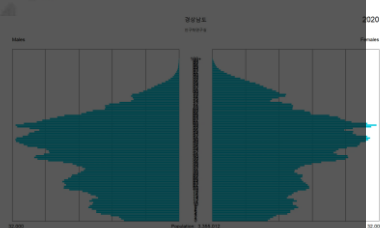
제주도

#환경자원이_매우_중요한_제주

#적정인구가_존재_할까?

#청년_인큐베이터_순환_구조_제주

#제주미래비전_인구



대한민국 인구추계
2021년 : 49,979,1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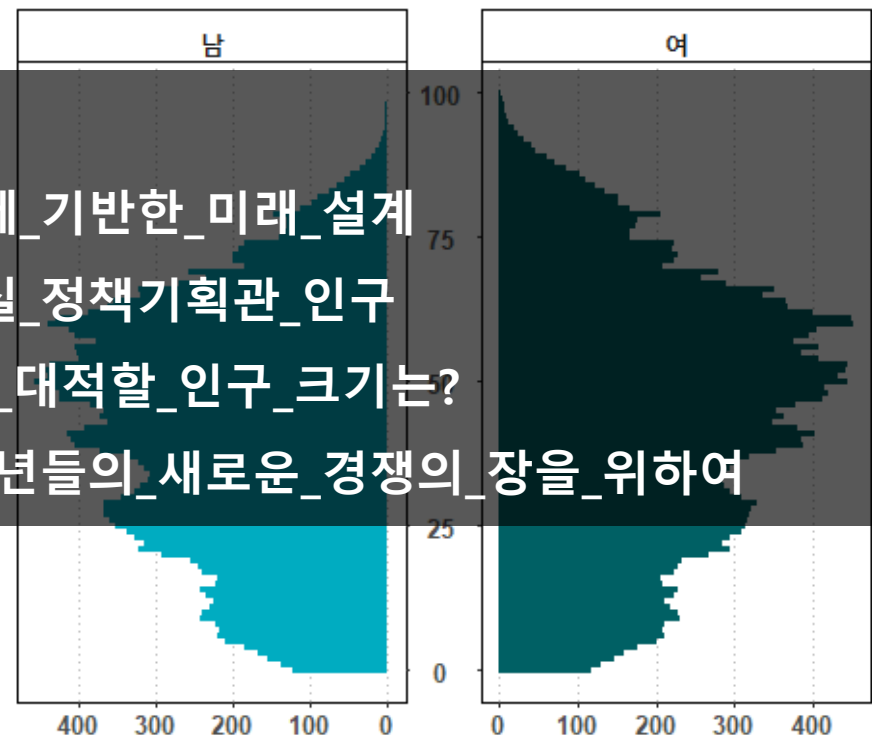
경상남도

#인구통계에_기반한_미래_설계

#기획조정실_정책기획관_인구

#수도권에_대적할_인구_크기는?

#부울경_청년들의_새로운_경쟁의_장을_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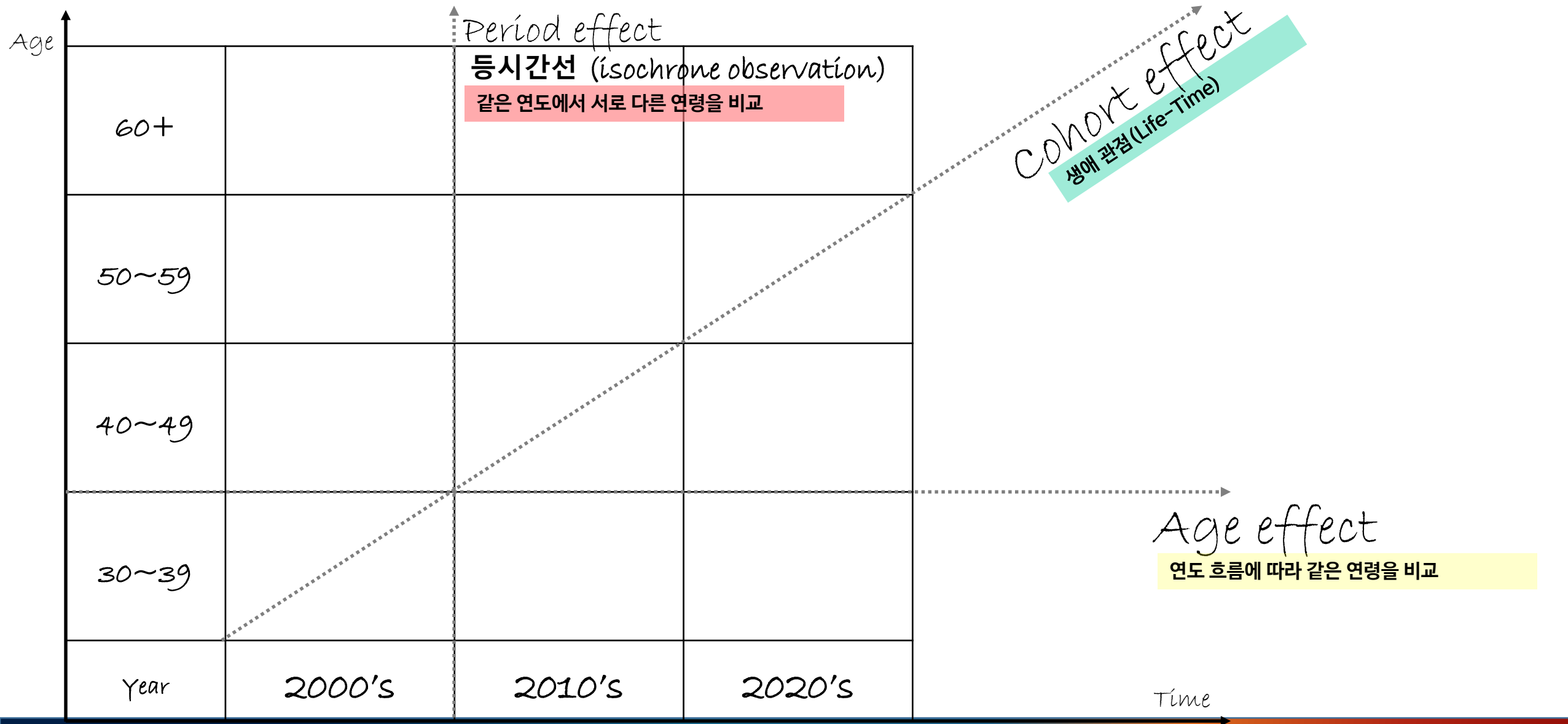


인구수(천명)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대한민국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인구학은 어떻게 미래를 읽는가?



인구는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아서,
그 변화를 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듯
시나브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구로 정해진 미래는

숙명이 아니라, 정밀한 예측의 시작점

여러분이 기획하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 『인구, 미래, 공존』, 2021 中 -

조영태 드림